



“우리 다시 만나[서 싸우]게 해주세요”

시작은 한 통의 메일이었다. 2019년 6월 어느 날, 일본에 계신 지도교수 사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은경 상은 괜히 이 메일을 열었다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 잠깐, 행운의 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경쾌한 문장이었다. 다가오는 여름 두 분께 한국 출장 계획이 있다는 것, 공무를 마친 후 동행 2인을 포함한 4인이 8월 초 대전에 갈 예정이라는 것, 가능하다면 내가 그 일정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오래전 드라마 <모래시계>가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을 당시 한국인 유학생의 도움(동시통역)으로 비디오를 챙겨보실 정도로, 수십 년 전부터 —사람, 음식, 문화, 언어 등—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으신 분. 몇 번 서울 일정에 동행했던 적이 있지만, 들어보지 못한 어조와 용건이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넵! 일단 시간을 비워두겠습니다. 구체적인 준비는 상의하면서 차근차근 하도록 하지요.”

이후 준비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이번 대전행은 교수님 부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40대의 일본 기독교 계열 출판사 편집자인— 사토 씨(가명)라는 지인이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나머지 세 분은 한국이 초행인 그의 여정에 대한 염려와 그의 사연에 대한 관심으로 동행한다는 것이었다.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설명이었지만, 기왕 적지 않은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어려운 걸음을 하는 것이기에, 일본어로 된 대전 관광지도를 찾아 보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생각해 보시라 했다. “가려는 곳은 ‘뽕죽집’(이것만 한글로 적혀 있었다)이구요, 그 부근의 대전여중 정도. 혹시 시간이 남으면 역사박물관이나 한일의 기독교 관련 유적이면 좋을 듯합니다.” “사토 씨가 뽕죽집을 방문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고 어차피 우리는 노인이라 많이 못 걸으니, 굳이 다른 일정은 안 잡아도 좋아요. 점심도 한국[적인] 음식이면 다 좋구요. 아, 막걸리를 맘껏 마실 수 있겠다. 오랜만에 한국에 가게 되어 설렘 뿐.”

낯선 대전으로 외국인 손님을 모셔야 한다는 불안한 마음에, 대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전에 살고 있는 혹은 대전 출신의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일본인이랑 대전이요? 왜요? 무슨 집을 보러 간다구요? 집이 뽀족하다구요? 그런 건 처음 듣는데요? 일본인이랑 대전여중(강당)을 가요? 정말이요? 제대로 들으신 것 맞아요? 주변 온천이 나올 텐데...아니, 여름이니 그건 안 되겠죠? 한 시간 정도 벗어나서 절이나 계곡으로 가는 건 어때요? 전주소 멀지 않은데, 거기 음식이 유명하지 않아요? 교수님 고향도 전주라면서요? 아참, 원래 목적이 대전이었죠? 근데 왜 하필 대전을 꼭 가셔야 한대요?” 도돌이표인지, 뽀족우스의 띠인지...뭐 그런 대화가 계속되었다.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고 소탈한 분들이지만, 8월 초라는 가장 무더운 휴가 시즌에 주말의 정체를 뚫고 아무 연고가 없는 낯선 도시에 모시고 간다는 것. 교통, 통역, 식사, 현지 가이드.... 어느 것 하나도 간단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유학 후배로부터 은사님도 될 겸 나를 도와 대전행을 함께하겠다는 낭보가 도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토 씨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뽀족집 안에 들어가려면, 대전에 계신 이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미 약속은 되었으니, 구체적인 일정은 두 분이 직접 상의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상치 못한 인원이 추가되어 살짝 당황했지만, 덕택에 현지 사정의 파악이 좀 더 쉬워졌고 무엇보다 미스테리한 대전행의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이 되었다. 전화를 받은 이는 근현대 미술사를 전공하는 학예사로, 과거 식민지 조선에 관료로 부임했던 이가 대전에 지은 집이 ‘뽀족집’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 자신은 이전에도 건너건너 부탁을 받아 뽀족집을 지은 이의 후손이라는 일본인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 이번에 또 다른 후손(사토 씨!)이라는 이로부터 도움을 부탁하는 짧은 영어 메일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는 것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현재 누군가의 사유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뽀족집에 얽힌 역사적 경위와 건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관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하하하, 이건 무슨 일제 침략의 앞잡이(?)의 후손이 굳이 한국에 와서 선조가 남긴 유산을 돌아보겠다는 건가요? 이번 대전행의 콘셉트는 노스텔지어 혹은センチ멘털리즘인 것 같네요. 혹시나 우리, 일제의 부역자로 돌 맞는 거 아닐까요? 기분이 미묘한걸요? 깔깔깔.” 데면데면 어색한 통화 중에 농을 치려던 것이었던 듯도 한데, 오래지 않아 농담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필 대전행을 준비하는 그 7월 한 달 동안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이라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한일 간의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촘촘하게 교류와 협력이 확산되고 축적되어온 만큼, 설령 다시 한일 정부 간에 전략적 차원에서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역사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지라도, 좋든 싫든 실제적인 이웃으로서의 관계 자체가 부정되거나 단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더구나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따돌림 당한 휘방꾼이 아닌 또 하나의 이웃이자 당사자로 일본을 껴안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내 나름의 합리적 판단도 있었던 듯하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처럼, 국경을 넘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각종 문제가 산적한 미래라는 ‘외계인’의 습격 앞에서, 양국 정치인들이 아웅다웅 신경전과 진부한 신파극을 반복할지언정 설마 한일관계를 내 기억이 끝닿는 곳보다 더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지는 못하리라는 막연한 낙관이 있기도 했다.

1) 정식명은 “대전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大田 大興洞 日·洋 折衷式 家屋)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4412503770000&pageNo=1_1_1_1

그러나 2019년 여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멈추었다. 한일의 시민이 수십 년에 걸쳐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협력했던 모든 기억이 상실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극한 대립으로 치달는 양상은, 남북의 병사들이 소소하고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정을 쌓았지만, 우발적인 한 방의 총성이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렸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극을 떠오르게 했다. 돌연 ‘총성’이 울렸고 양측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는지 왜 당겼는지에 대한 증언은 엇갈렸다. 다만, 양측의 진술에 공통점은 엇보인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원인은 네게 있다.’ 진실을 알기도 어렵지만, 때론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별무소용일 수도 있다. “나는 너희가 먼저 쏘다고 할 테니, 너도 무조건 우리가 먼저 쏘다고 우겨.” JSA에 이와 비슷한 대사가 있지 않던가. 반공이나 반일과 관련해서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길고 다양한 경험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수위가 남달랐다.

8월 3일(토)은 대전행이 약속된 날이기도 했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예정된 날이기도 했다. 7월 한 달 동안 양국의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향해 매일매일 분노의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을 지켜보았기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일본인들을 모시고 기차를 타고, 식당에 가고, 거리를 누비는 것이 안전하기는 할까 걱정이 되었고, 면식도 없는 일본인을 위해 선의를 베풀려던 학예사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마음이 변하거나 최소한 불편해하지 않을지도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KTX 안의 승객들은 목소리를 낮춘 우리의 일본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현지 밴의 기사 역시 손님들이 일본인이라는 사실 자체보다는 일본과 서울 등지에서 떼로 몰려오기에는 어울리지 않은 낯선 목적지를 신기해했다.

학예사 역시 불편한 내색은커녕, 주말임에도 우리 여정의 깊이를 더해줄 동료까지 동반하고 나타났다. 그들은 한일의 종교와 역사가 얽힌 대전의 유적지들로 우리를 안내하고, 세심하게도 작은 세미나실을 확보해서 간단한 브리핑 시간까지 마련해 두었다. 그들이 뽕족집과 그 설립자에 관한 한국 측 자료를 찾아서 배포하자, 사토 씨 역시 외증조부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 대전여중을 다녔다는— 외할머니에 관한 사진첩과 기록 등을 주섬주섬 꺼내들었다. 서로가 가져온 자료를 교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뽕족집을 둘러싼 사연이 조금씩 명확해졌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이번 대전행의 목적이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후덥지근하고 눅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전 뽕족집

사토 씨의 외증조부 와타나베 이와지(渡辺岩治, 1875~1946)는 후쿠시마(福島)에서 태어나 센다이(仙台) 거주 중에 세례를 받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조선총독부의 관리로 부임하여 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1910년 9월 조선에서 일본인 직장 선배의 딸과 결혼한 그는 서울(용산), 김천, 만주(안동), 인천 등을 거쳐 1922년경 대전에 부임했다. 1남 4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역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야구대회 시구를 맡기도 했고, 대전에서 유일하게 —독일에 직접 제작을 의뢰하여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배달시킨— 피아노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주문·제작한 양복을 즐겨 입을 정도로 상당한 지위와 경제력을 자랑했다. 그러한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 그가 퇴임 후에 주도하여 지은 ‘뽕족한 지붕의 집’(とんがり屋根のお家)으로, 이 건물은 ‘맞배지붕’의 본체 건물에 거실이 원형으로 돌출되어 있고, 바로 그 위의 원뿔형 지붕이 맞배지붕과 함께 뽕족하게 솟아올라 있으며, 그 내부는 일본식과 서양식을 절충시켜 꾸며졌다.²⁾

2) 당일 사토 씨가 준비해서 배포한 에세이의 내용에 인터넷 검색 결과 등을 합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드디어 뽀족집 내부에 직접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는 이전까지와는 또 다른 이유에서 마음이 착잡해졌는데, 오랜 역사와 빼어난 디자인을 가진 문화재에 어울리지 않게, 방치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무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개발사업 때문에 으스스한 곳으로 거칠게 이전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로도 소유권 분쟁 등을 거치면서 건물의 일부만이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다. 내부 설비는 원래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웠고, 라면 봉지나 청소도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하지만 사토 씨는 자신의 선조가 지었고 살았던 집에 발을 딛게 된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한 듯했다. 뽀족집을 배경으로 찍힌 선조들의 사진을 꺼내들고, 사진이 찍힌 위치나 각도 등을 확인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외할머님이 찍으신 사진 구도대로 찍어드릴게요. 그 자리에 서보세요.” “떠나기 전에 잠시 혼자 기도하실 시간을 드릴까요? 저희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점심을 위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한국인의 식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반영해, 학예사들이 추천한 깔끔한 설령탕집으로 향했다. 8명의 일행이 4명씩 두 테이블을 이어서 앉고 보니, 나와 사토 씨가 나란히 앉고 맞은편에 두 학예사가 자리했다. 설령탕이 들어오기 전인지, 설령탕을 다 먹고 그릇을 치우기 전인지 잘 모르겠다. 사토 씨가 내게 다소 굳은 얼굴로 통역을 부탁했다. 어차피 지금까지 내내 해온 일이었지만, 다른 의미에서의 부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박또박 한 문장씩 통역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말을 언제, 어느 자리에서 해야 할지 하루 종일 고민했을 것이다.

“저는 저의 [외]증조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당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희 선조가 일본의 한국 침략과 통치에 가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조상이 한국에서 한 일에 대해 조사해서 정리하려 합니다.” 그는 정말 이렇게 또박또박 힘을 주어 말했다. 반 백 년을 살다 보니,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런 닭살 돋는 발언을 통역하는 날이 오기도 한다.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자 당황한 학예사들이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그들도 내게 통역을 요청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오랜 역사뿐 아니라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특별한 가옥을 남겼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존,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안함을 표했던 듯하다. “아닙니다. 한국을 침략한 일본인이 지은 집인데도, 완전히 부수지 않고 지금껏 남겨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그날 이후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각종 보복 조치들이 강구되어 실행되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각종 민간 교류의 중단이었다. 양국 관계의 냉각 속에 강경책을 택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나름의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지만, 민간 교류의 차단 즉 양국의 시민들이 서로 마주할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다. 스스로의 주장과 입장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그 내용을 더 널리 설파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이들을 보내 더 많이 대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초중고 학생들의 상호 방문 프로그램, 지자체나 시민단체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을 출출이 보류하는 것은, 어른들 싸움에 어찌면 생애 처음일 수도 있는 해외여행의 꿈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찬란한 성과로 자랑해온 양국 교류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정치와 외교의 들러리에 불과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씩씩한 일이었다. 양국 관계가 경색되었다고 났름 손을 떼는 민간 교류라니, 그동안 해 온 교류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간의 교류가 진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이럴 때야말로 ‘그래도 우리,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리는 모습이 나올 법하다. 말로 대거리를 할 수도 있고 각종 정책으로 보복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것과 같은’ 민간 교류 중지가 선택지의 하나가 되지는 않기를 바란다.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한일관계의 격동 속에서도 깊은 바닷속 저류와 같이 무거운 고민을 담아,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고민을 담아 ‘일본’을 대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기분이 묘하네요. 사실, 학예사로 있다 보니 가끔 이런 식의 업무나 부탁이 있기는 해요. 그럴 때마다 방문에 앞서 그와 관련된 자료와 역사를 PPT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데, 이번에는 기분이 좀 찜찜해서 사실은 평소에 비해 좀 ‘소극적으로’ 짧게 준비했어요. 오늘 사람들은 반일 데모를 위해 광화문에 모인다는데, 어쩌다 우리는 일본인들을 접대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거리에서 맹렬하게 고함을 지를 때, 누군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소심하게 손님을 접대한다.

이후, 놀라운 한일관계의 전개보다 더 놀라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래도 민간 교류는 막지 말아달라’는 당부조차 무의미해졌다. 스킨십 없이 영상과 이미지, 수치와 텍스트로만 접하는 대상은 점점 더 괴물 같은 존재로 각인되기 쉽다. 그래서 —2020+1 도쿄올림픽 개최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음에도— 그나마 한일이 ‘직접 만나’, 정정당당하게 대결할 기회를 가진 것은 반가웠다. ‘그래, 만나서 싸워야지.’ 전에는 한일이 싸울 때마다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차라리 싸우더라도 만날 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은경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